

Editor's Pics

September, 2020 | .

page 1 of 1



사진 박홍순

1 a'strict

8.13~9.27 국제갤러리



1
 <WAVE> 설치전경. 2020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Copyright 2020. d'strict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 제공: d'strict)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감각적인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온 아트 테크 팩토리, 디스트릭트(d'strict)의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인 에이스트릭트(a'strict)의 첫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8월 13일 시작해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디스트릭트는 지난 5월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대형 LED 스크린에 퍼블릭 미디어 아트 <WAVE>를 선보인 바 있다. 착시 현상을 이용해 입체감을 구현하는 '아나모픽 일루전(Anamorphic Illusion)' 기법을 활용해 평면 스크린을 거센 파도가 치는 입체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WAVE>는 강렬한 시각 경험을 주어 기술적, 예술적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블랙홀로 탈바꿈한 K3 공간의 6m 높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시원한 파도 <Starry Beach>를 선보인다. 솟아오르고 사그라지기를 반복하는 작품은 거울로 둘러싸인 벽에서 무한으로 확장한다. 이 공간각작 작품은 스펙터클에 그치지 않고 물의 물성과 본질을 인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관람객들의 감각과 사유를 자극한다. 디스트릭트는 오는 9월 제주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상설 미디어 전시관 '아르떼 뮤지엄'을 오픈하며 또다른 파도 실험을 이어갈 예정이다.